

2020년도 제12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양악부문 작품선정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제12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양악부문 작품선정 심의
- 회의일시 : 2020. 11 05(목) 15:00
- 회의장소 : 아창제 사무국 회의실

2020도 제12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양악부문 접수 작품은 총54작품으로, 초연부문 38작품, 재연부문 16작품이다. 심의기준은 작품의 예술성 및 창의성(90%),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및 지원 후 기대효과(10%)에 두었으며, 다양한 형태(작품성향, 구성 등)의 창작곡 발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악보(블라인드심사), 재연곡의 경우에는 제출한 영상 및 음원자료를 참고자료로 하여 심의위원 개인별 심사 진행 후, 최종작품 선정을 위한 토론 심의를 진행하였다.

한해 관현악 작품의 응모가 54작품에 다다른다는 것은 놀라운 양이다. 그 양 만큼이나 작품의 소재나 모티브, 컨셉 등에 있어서 다양한 시도가 있다는 점 또한 돋보인다. 자연을 노래하기도 하고, 개인적인 감정이나 경험 등을 소리로 추상화시키거나, 문학, 미술 등 타 장르 예술에서 느낀 감각을 청각화하기도 했다. 또한 역사적, 정치적 사건에 기반을 둔 작품이 있는가 하면, 음색, 형식에 대한 탐구나 변주방법 등 순수 심미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작품들도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선정되어 발표된 작품들과 비교해 볼 때, 음악미학이나 구사하는 양식에 있어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없어 아쉬움을 느꼈다.

심의위원들은 출품작품 중 관현악곡 작곡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사항들, 가령 무조성의 작품의 경우 사용악기의 이조 여부 명시, 2관 이상 편성시 관악기 연주자의 파트 지정 등이 안되어 있어 평가시 정확한 내청을 방해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템포를 고려하지 않은 채 난해하게 분할된 Tutti 리듬 사용이나 섬세한 소리를 다루는 특수주법에 대한 충분하지 않은 설명 등은 실제 관현악 연주의 성패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연주를 고려한 악보 작업에서의 세심한 주의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전체적으로 협주곡을 악기 특성에 맞추고 비중 있게 다루는 훈련이 필요하며, 콩쿠르가 아니니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풀어나가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데에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모였다.

선정된 작품들은 실험적이며 음향적 작업에 집중한 작품들보다는 현대적 음악어법 위에 자기 정체성과 연구의 성과가 부각되는 작품들을 선택하였다. 또한 재연가능한 음악성이 담긴 작품에 집중하였다. 전체적으로 음악적인 흐름과 조화를 이해하고 오케스트레이션 또한 확고한 개념과 이해가 높은 작품을 우선적으로 골랐다.

제12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양악부문 심의위원 일동